

파고다공원의 진풍경(珍風景)

■ 향촌 권 오 창

파고다공원은 서울 종로2가에 있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공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공원은 1901년 탑골공원으로 명명되었고 공원 일원에 역사적인 유적을 표상하고 있어서 교육현장으로 관광지로 또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공원으로 명명되기는 대한제국 고종황제때에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브라운의 건의로 1897년 파고다공원으로 조성 되었다. 파고다라는 명칭은 조선조 1465년(세조11년)에 고려때부터 내려오던 흥복사 절터에 세조가 원각사를 세우고 1467년(세조13년)에는 원각사 10층탑을 건립하였다. 이 탑을 연유하여 고종때에 파고다라는 공원 명칭이 부쳐진 것이다.

공원내의 주요시설물은 원각사 10층석탑 원각사비 원각사사자팔각정 3.1독립선언 기념탑 3.1정신 찬양비 3.1운동 기념



부조 의암 손병희 선생동상 만해 한용운 선사비 양부 일 구대석 등이 있다. 석탑은 지금은 10층이나 사료에는 13층으로 기록이 있고 각층에는 불화도가 양각되어 있으며 부처님의 전생설화와 일생을 조각한 것을 살필 수 있는데 지금은 풍화작용을 막기 위하여 유리집 안에 보존되고 있어서 밖에서만 바라볼 수 있다. 이 석탑은 국보 제2호이다. 팔각정은 대한제국 황실의 음악 연주소로 사용되었다. 이 곳 팔각정에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인쇄물을 뿌리고 시위에 들어간 곳이다. 3.1기념탑은 1982년 4월15일에 건립하였고 3.1독립선언서를 음각하였다. 3.1운동기념부조



가짜가 판치는 세상, 이를 걸러낼 책임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중원 땅은 한족(漢族)만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漢)이 망하면서 이른바 북방지역에 살던 오호(五胡)가 중원지역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한족들은 남쪽으로 쫓겨 가서 남조(南朝)를 이루었다. 이렇듯 한왕조가 망하니 세상은 혼란해졌고, 이런 혼란을 피하여 산속으로 들어가서 노장(老莊)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러한 분위기와 발마추어 역시 세속을 벗어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불교도 번성하였다.

사실 불교는 이미 전한 말에 들어왔고, 후한대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때에는 유교를 이념으로 삼고 있어서 그다지 번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위진시대에 오면 서역(西域)으로부터 많은 승려들이 중원으로 들어왔고, 불경도 한문으로 번역되었으며, 승려는 최고의 지식인으로 대우받았다.

그래서 남조에서는 재상으로 승려의 학문을 끌어 대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승려가 최고의 지식인으로 대우 받게 되자 황제들은 승려에게 자문을 받고 정치를 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후조(後趙)를 세운 석륵(石勒)은 지금 인도인 천축(天竺)에서 온 승려인 불도장(佛圖澄)을 알게 되었고, 그의 자문을 받아 정치를 하였다.

그런데 불도장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성패(成敗)를 미리 맞히는 일이 많아 황제가 된 석륵은 불도장을 극진히 공경하였다.

석륵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석호도 역시 불도장을 삼가 섬겨서 그에게 비단 옷을 입게 하고, 화려한 연(簾)을 타게도 하였다.

조화가 열리는 날이면 태자와 여러 공작(公爵)들이 그를 부축하여 계단을 오르게 하였으며, 반드시 '대화상(大和尙)'이라고 존칭을 사용하여 불렀다.



은 나라가 모두 불도장을 공경하여 그가 있는 곳이면 그곳으로 침을 뱉지도 않았다.

이렇게 승려가 대우를 받자 사람들은 다투

어 절을 지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사회적으로 승려를 대우하는 풍조가 일자 승려에게는 부역까지 면제해 주며 우대했다. 이쯤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통스런 부역을 담당하기 싫은 사람 가운데 약삭빠르게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는 사람이 생겼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기 위하여 삭발하고 출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역을 피하려고 삭발을 하였다. 승려를 우대하는 정책에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황제인 석호도 이를 우려하였다. 대신들 가운데서도 이를 비판하고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는 사람이 생겼다.

드디어 명령하였다. '앞으로 출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허락을 받으라.' 하니 마음대로 출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너무 가짜가 많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을 담당하기에 교수를 대우해 주었더니 정치를 하러 나선다.

성직자여서 많은 사람이 대우를 해 주었더니, 엉뚱하게 돈벌이를 하거나,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자기 할 일보다 잭팟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이시대의 가짜들이다. 지금 가짜를 걸러내는 것은 민초들이 해야 한다.

그리고 3.1정신 찬양비는 공원 동쪽 돌레담백에 있다.

원각사비는 원각사의 중간내력을 음각하였다고 하나 풍화작용에 의하여 마모되어 잘 알아볼 수 없다. 지금은 비각을 지어 비석을 보존하고 있으나 필자가 국민학교 2학년 겨울방학때에 시골에서 와서 조부님과 함께 전차를 타고 종로2가에 세 내려 원각사 비석을 보았을 때는 비각도 없었고 노천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비대석은 물이 고여 얼음이 붙어 있었다.

조부님께서는 1920년대 일본 오사카를 시찰하시고 경성 관철동에 체재하시면서 청운의 뜻을 품으셨으나 일제 강점기의 통분을 삼키면서 귀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날 손자를 데리고 관철동 건너편 파고다 공원을 다시 찾으면서 감회가 깊었으리라고 상상해 보았다. 아마 지금과 같이 공원이 정화 정비된 것은 1979년 3.1절 60주년 공원 정비작업때에 일신 되었다고 하겠다.

상고하여 보면 원각사를 세운 세조는 세종의 둘째아들 문종의 동생이었으나 등국한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14년간 제위 하면서 왕권 확립의 공적이 있었다고 하나 말년에는 피부병으로 고생하면

서 불문에 귀화하여 원각사를 지어서 참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1운동은 한일합방 후 일제침략에 항거하고 강화되는 일본 자본주의 침탈과 무단정치 실시에 반기를 든 민족자주독립운동이었으며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

의 민족자결주의 제창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일본 동경 유학생들의 독립운동에 자극을 받고 1919년 2월 상순 권

동진 오세창 손병희 등이 독립선언을 의논하고 기독교16명 천도교15명 불교2명 모두 33인이 파고다 공원에서 3.1독립선언을 하고 그 후 급격히 자주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일본의 통고문을 보내고 파리강화회의에도 의견서를 보내게 되었으며 3

월28일에는 유럽에서 파리장서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조선 총독부에 독립승인 최고장을 제출하였고 4월23일에는 임시정부 조직포고문을 발표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일제 탄압이 가속화 되고 일본의 무력앞에 진압되었으나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식은 만반에 선편되고 대대적으로 민족 결속이 이루어졌고 일본의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향되었다.

독립운동은 해외에서도 활발히 일어났

권태강 검교공파종회장 장남 권영준씨 표창장 받다

권태강(權泰康) 검교공파종회장·윤태희 여사(서도가)의 장남인 권영준(52세) 씨가 지난 11월 25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장(3급)으로 30여년간 근속하면서 판교 열 병합발전소 준공 등 업무를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기행문

先進 西部유럽 探訪

■ 권 계 동 (본원상임부총재)



려들과 있었다.

산마르코 광장에는 시청의 구청사와 신청사, 종탑, 시계탑, 박물관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높이가 92m나 된다는 종

탑이 있었는데 갈리레이 갈리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법정에 서서는 천동설을 인정하고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다

성마가 상과 날개가 있는 사자 상을 지나서 산마르코 광장에 왔다. 광장에는 수많은 비둘기들이 먹이를 달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달

고 우리나라 3.1운동이 중국에서는 5.4운동의 기록제가 되었다.

요사이 이 공원은 중국 일본 영어권나라에서 서울시내 씨티투어의 명소가 되고 있다. 이 곳이 외국인 여행객과 안내원

의 거점장소이고 자원봉사 문화유적해설사는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볼 때에 금석지감이 있다.

공원의 수목들은 우거지고 지적이는 새들과 까치와 까치집은 고목의 전설을 일깨워 준다. 철따라 피는 꽃은 경관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주위에 민속음식점과 생활필수품 가게에는 위생적이고 저렴하며 품질이 좋고 이곳에 닿는 대중교통편은 다없이 편리하다.

일자리 없는 노인들과 왕년의 참전용사

들은 무용담과 세상사를 토론하고 봉사종교단체에서는 선교활동과 무료 배식제

공도 이채로운 풍경이다.

공원 담벼락을 따라 벼룩시장도 형성되고 주머니사정을 감안한 먹거리 판매방법은 외국시장에서 보는 것과 같다.

서울 낙원동열 탑동 파고다공원은 이래저래 찾아오는 목적에 따라 하루해를 보내는 사람들의 낙원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권영준 부장은 한양공대를 졸업하고 이어 지역난방공사에 입사해 30여년간 근속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발전소, 전기시설, 공사 등 건설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매사에 솔선수범하면서 타의 모범을 보여 주기도 했다.

(권오복 편집위원)

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였다.

8) 막강하던 두칼레 궁전

산마르코 성당 옆에 붙어 있는 베네치아공화국의 정부 건물로 전성기에는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였다고 하였다. 9세기에 만들어 졌다가 몇 번의 화재를 겪으면서 재건되었다고 한다. 15세기 재건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이곳의 주요 관광지는 산마르코 광장을 중심으로 한 산마르코 성당과 두칼레 궁전, 유리공업으로 유명한 무라노 섬, 해수욕장, 카지노, 국제 베니스 영화제로 유명한 리도 등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산마르코 광장의 산마르코 대성당과 두칼레 궁전, 아카데미아 미술관 등은 이탈리아의 관광, 미술, 건축예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공화국 변영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베네치아는 로마 피렌체와 더불어 가장 명성이 높은 관광지라고 했다.

9) 산마르코 대성당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산마르코 성당은 9세기 산마르코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세

바로잡음

본지(2011. 12. 1 제 438호) 2면 정간공 추향 및 총회 기사중 임시의장 권순선 정간공 부회장을 권오실 정간공 고문으로, 3면 영덕총친회 시조묘소 참배 기사중에 부정공 휘 就正을 휘 通義로, 4면 대종원총재단 임원사진란에 고문 權鍾陸씨를 權鍾義씨로 권영의 부총재의 전근산업을 정근산업으로, 경북(대의원)에 권오열씨를 오서씨로, 5면 대종원과총회장, 종무위원 사진란에 좌윤공파회장 權宅元씨의 38世를 37世로, 종무위원 權忠康씨의 부야공파 38世를 35世로, 종무위원 權五錫 사중공파의 35世를 34世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은 곳이라고 한다. 그 뒤 큰 화재로 몇 차례 걸친 수리작업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돔 지붕으로 된 이 성당은 1200년 전인 823년에 세웠다고 하였다. 정면의 지붕 위에는 네 마리의 청동 말이 있었다. 돔의 지붕을 만들고 창문을 만든 것은 채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 권혁기(부총재) 100만원
▲ 권중준(감사) 100만원
▲ 권주연(부총재)일부 60만원
▲ 권영한(부총재) 100만원
소계 360만원

■ 종무위원회비
▲ 권준식(목사공회장) 20만원
▲ 권경섭(의성) 20만원
▲ 권혁길(강릉) 20만원
▲ 권상흥(부산) 1차분 10만원
소계 70만원

■ 대의원회비
▲ 권기갑(이천) 10만원
▲ 권오기(안동) 10만원
▲ 권부득(제천) 10만원
▲ 권오창(원주) 10만원
▲ 권상현(광주) 10만원
▲ 권재철(부산) 10만원
소계 60만원

■ 찬조금
▲ 동은공문중 5만원

합계 495만원

稅務士 權 九 文 事務所

- 양도, 상속, 증여세 상담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개인, 법인의 기장, 고문
- 기타 세무상담 일체환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3-14 보보스텔 208호
TEL:2066-9741~4 / H.P : 011-307-2443 FAX : 2066-9745

행복한 결혼을 찾아주는

하 나 결혼 정보



소장 권 경 분

권문(權門)의 자녀 결혼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성심성의껏 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상제리제센타 A동 1706호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선릉역 ①번 출구)

- 상담전화 : (02)501-1177
- FAX : (02)508-5285
- H·P : 010-3203-3555
- 자택 : (031)794-0980
- E-mail : hm1003@hanmail.net